Entertainment p/18
가요계 '아이돌 빅매치'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박주영 4일 상암벌 뜬다

좁쌀한테 또 당할라

샤오미 "갤럭시S6 한판 붙자" 10만원 폰 등 신제품 쏟아내 p/10

2등으로 밀린 삼성 "또 지면 중국은 없다" 긴장

레이쥔 샤오미 회장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홈플러스 저가 행사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p/10

더 많은 뉴스는 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삼성 겨눈 박영선은 女십자군"

美 블룸버그 '박영선 인터뷰' 톱기사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한 여성 십자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일 홈페이지 톱기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수법은 삼성 상장차익을 노리는 재벌의 행태를 겨냥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1999년 삼성가가 거둔 삼성SDS 상장차익을 환수하는 게 목표다. 삼성가 문제가 이학수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국제이슈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학수법 전문을 공개하며 "엄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 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를 통한 부당한 부의 상속현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를 추구하는 그릇된 충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박 의원에 대해 "박영선은 (학생시절) 보든 소녀들의 비공식적인 우두머리였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시내 아이들에게 맞서곤 했다"며 "(40년이 지나 의원이 된 후) 자신의 시야를 학교폭력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갔다"고 소개했다.

이학수법은 법 적용대상인 특정재산범죄를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환수대상재산에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도 이학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호남고속철도 개통 축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습 아니라 "3월5일 있었던 일"

리퍼트 대사 블로그 통해

마크 리퍼트(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1일 피습 이후 처음으로 올린 영문블로그 글에서 자신이 당한 피습사건을 '3월 5일 있었던 사건(the events of March 5)'이라고 표현했다.

리퍼트 대사의 의중은 한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 간 끊어질 수 없는 고리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내) 로빈과 저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 분들이 성원해 주셨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많은 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저와 로빈 (아들) 세준, (애견) 그릭스비에게 정말 큰 의미였다"고 적었다.

리퍼트 대사는 트위터 메시지와 퇴원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되풀이했다.

리퍼트 대사는 퇴원 후 근황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반 정도 집에 머물렀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는 계속 해 나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퇴원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방한 중이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위한 만찬을 열고 13일에는 주한미군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업무 복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좋다"고 했다. 또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공개 행사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한국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행사에서 소개된 조리법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 가족들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자원외교국조, 청문회도 못열고 문 닫나

여야는 1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특위는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오는 7일 활동이 종료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1시간가량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권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문 대표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3월 31일과 4월 1일, 3월 6일 총 4일 청문회를 열 것을 결의했지만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특위 활동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경기자 [illegible]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장의 여야 대표 1일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태일 동생도 '입법로비 의혹'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의원뿐 아니라 야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도덕성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성노동복지터'에서 대표를 지내고 사회적 기업 '참신나는옷'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노동운동을 펼치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 전신)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 의원이 1번으로 지명된 데에는 오빠인 전태일 열사의 노동운동 대표자 의 가치가 고려됐다.

전 의원은 당선 뒤 2012년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1970년) 오빠가 분신한 뒤 공안당국에서 영안실에 거액의 돈을 놓고 갔다. 그때 어머니는 작은 오빠와 저, 동생을 불러 '저 가방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다. 저 돈을 받으면 너희들이 공장 안 다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셨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여쭸더니 '식구 모두가 계속 공장에 다니며 오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다"며 "당장 오빠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희는 돈 받지 말자고 답했고 어머니는 돈을 돌려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고 어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고 했다.

2012년 당시 인병욱 공천심사위원장은 작을 말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민주(통합)당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전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지자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현재 국제의원총회(IPU)에 참석 중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아직 소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했다. /이정경기자 [illegible]

“조현아, 항소심서 형 가중 될 수도”

‘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항공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항로변경 업무방해와 더불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상환(사진) 재판장이 심리하는 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도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 행위로 본 1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최근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 발부 뒤 조 전 부사장이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해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설정됐고,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김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아 조 전 부사장의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재판장은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 받았다.

김 재판장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위안부 소녀상 옆에 놓인 아베 총리 얼굴 머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역사 왜곡 일본 규탄 기자회견'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진이 붙은 인형의 머리를 자르고 나서 위안부 소녀상에 바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사드, 국가존망 달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린 것"이라며 "오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고, 언론을 통해 수 년간 공론화됐다.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도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지 많은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중도하 전략을 한다며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렇게 발목 잡는 정당이 어떻게 경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지도자라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개혁에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새정치연합이) 자기들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는 경제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오는 6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실무기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아 기자

‘K-11 소총 탄환’ 폐기땐 240억 낭비

우리나라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고 홍보됐던 K-11 복합소총이 결국 문제가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통장치 균열 외에도 큰 문제가 되었던 전자파 간섭 문제가 입증되면서 탄환 1만여발을 고스란히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발당 탄약 생산 단가가 16만원인걸 감안하면 240억의 혈세를 그대로 낭비하게 생긴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사통장치 균열'의 문제는 4월부터 6월까지 업체 시정 등 후속조치를 하고 6월부터 다음해까지는 잔여물량 생산과 전력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파 간섭문제'는 전자파 영향성 확인시험 결과 저주파대역의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전자파 시험 분석을 하고 6월에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11 소총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장전하는 소총으로 주·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적 밀집지역이나 은폐 엄폐된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분대 편제 개인화기다.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2000년부터 2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사업이다. 2011년 10월 14일에 1차 사고 발생 후 2012년 12월에 양산 재개했으나 2014년 3월 12일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품질검사 중 2정에서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말까지 3000여 정을 납품하려던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K-11은 센서에 자석만 갖다 대도 격발이 되는 문제도 있다. 20㎜ 공중폭발탄은 탄에 전자신호를 입력해 일정거리 이후 폭발시키는 시스템으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때문에 특전사나 향후 보급예정인 전투헬멧은 헤드셋 마이크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운용이 제한되고 전자장비 특성상 장비가 민감해 충격에 오작동 위험이 커 야전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도 같은 이유로 독일과 함께 개발 중이던 XM29 복합소총의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11의 20㎜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사용에서 쓰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하는 결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도 7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K-11 격발센서 결함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방사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윤아 기자 yoona@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관련 새누리당과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장된 9호선 여전히 혼잡

9호선은 2단계 연장구간 개통 이틀째인 31일에도 혼잡이 계속됐다.

이날 승강장과 열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혼잡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침착하게 기다려 안전사고를 스스로 막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출근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기보다 3.6% 증가했다. 예상보다는 적은 증가 폭이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높았다. 9호선은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 이용객 증가는 큰 영향을 미쳤다.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여의도역 등은 특히 혼잡도가 두드러졌다.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하고 긴 줄이 빠지자마자 다시 길게 줄이 늘어섰다. 전날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께다. 염창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진영(27)씨는 "일부러 일찍 나왔다"며 "버스 다기에는 집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도 사람이 많지만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

9호선 혼잡은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에도 이어졌다. 여의도역에서 만난 회사원 김지성(39)씨는 "여의도에서 신논현으로 출근하는데 출근시간에 타면 반대라 사람이 많지 않아 괜찮지만 퇴근할 때는 사람이 1.5배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료 출근버스 홍보에 신경썼다. 8663번 등 무료 출근 전용버스를 시민들이 잘 몰라 빈 좌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료 출근버스 운행을 고속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가양역부터 여의도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30개역에 91명이 배치됐던 안전요원을 460명까지 늘렸다.

Extended Line Number 9 Still Jammed

The congestion of line number 9 continued on the 31st which was the second day of the two stage extension section. Nevertheless, subway users were calm and were able to prevent minor accidents. According to Seoul subway users increased by 3.6% during the commuting hours compared to last week. This increase is less than it was expected to be but the subway users felt different. Since there are large number of people using line number 9 the little increase made a big difference. The congestion was especially noticeable at Kimpo airport station, Gayang station, Yumchang station, Dangsan station and Yeoudo station. As soon as the train arrived and the line was shortened, a long line of people was formed in a matter of seconds. This was repeated even on the next day. The most crowded time of the day is 7:30 in the morning. An office worker Jin Young Lee(27) who we have met at Yumchang station, said that she got up earlier to take the subway because the bus station was too far from her house and it takes longer to get to work. Also she added that though there are so many people she would take the general train instead of the express train. The heavy congestion not only a problem in the morning, but also in the evening as well. Kim Ji Sung(39) from Yeoudo station said that it is faster to go from Yeoudo to Shin Nonhyun on his way to work and there are less people, but it seems like there are 1.5 times more people when he goes home after work. Seoul has made more effort to promote and publicize "Free Commuting Bus". There were empty seats on these free buses including bus 8663 because not many people were informed of these buses. Seoul is considering to extend the commuting bus route to Express Bus Terminal. Presently the route is only from Gayang station to Yeoudo station. Also, for safety reasons and prevention of negligent accidents, Seoul has increased the number of safety guards from 91 to 460 in 30 stations all together.

/파고다어학원 Chris Kim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후폭풍 – 대기업 줄파산

브라질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로 브라질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지 유명 대기업인 OAS 그룹까지 파산신청 대열에 합류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OAS그룹은 이날 상파울루 법원에 공식 파산 신청을 했다. 5개 자회사의 부채가 79억 헤알(약 2조 7153억 원)에 달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AS그룹의 파산 신청은 브라질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대형 건설업체인 갈부아 엔지니어링과 가우바옹 엔지니어링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상태다. 갈부아 부채 규모는 10억 헤알(약 3437억 원), 가우바옹은 16억 헤알(약 5499억 원)이다.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들은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들 정치인에게 기부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는 180만명이 참가, 부패 비리 척결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했다. /김세미기자 redsun2016

터키 검찰청서 인질극… 검사 1명 사망

테러범 2명 사살

터키에서 검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인질극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테러조직인 '혁명민족해방전선'(DHKP-C) 조직원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이스탄불 검찰청 6층의 메흐메트 셀림 키라즈 검사 집무실에 난입해 키라즈 검사를 인질로 잡았다. 이들은 키라즈 검사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의 목적은 경찰관들의 '범행 자백'이었다.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당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베르킨 엘반(15)군의 책임이 일부 경찰관들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3시간 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사를 죽이고 청사 안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의 특공대 투입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질극이 벌어진지 6시간 만에 건물 내 폭발음과 총성이 들려 경찰은 즉각 대처에 나섰다. 셀라미 알트녹 이스탄불 경찰청장은 작전 종료 후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전화로 협상하다 총성을 들어 작전을 개시했다"며 "테러리스트 2명은 사살됐고 검사는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인질범과 검사 외에도 변호사 1명이 총상을 입고 폭발물이 3차례 터졌다고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검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DHKP-C는 터키·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단체다. 올해 1월 이스탄불 돌마바흐체궁전 앞에서 경찰을 겨냥한 수류탄 공격을 했다. 엘반 군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다.

엘반 군은 2013년 6월 반정부 시위 때 빵을 사러 나갔다가 최루탄에 맞아 9개월 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숨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엘반 군이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인질극 도중 엘반 군의 부친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며 "다른 이들이 피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세미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터키 이스탄불 검찰청에 난입한 테러단체 조직원이 인질인 검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다. /연합뉴스

할리우드 석유왕 시신 발견?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힐에 있는 석유왕의 후계자 앤드류 게티의 집에서 31일(현지시간) 신원 불명인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 한 여성이 전화로 집 안에 누가 죽어있다고 신고 전화를 했고 경찰관들이 곧 그 집으로 갔다고 밝혔다. 이어 욕실 안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상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이 시신이 게티의 시신인지 타인인지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47세의 앤드류 게티는 로스앤젤레스 폴 게티 미술관 설립자인 석유왕 폴 게티의 손자이며 상속인이다. 미국 내 최고 부호들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세미기자

실적악화에도 CEO 高연봉 高배당 챙겨

씨티은행, 직원 내보내고 CEO엔 71억 보수
하나금융·외환은행, 순익 40% 배당으로

저금리와 저성장 등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최고 경영자에 거액 연봉을 주거나 고배당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악화로 점포를 폐쇄하고 전 직원의 15%를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씨티은행은 21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과 해외 용역비를 미국 본사로 제공했다.

해외 용역비(1600억원)는 브랜드 비용과 전산 이용료로, 이는 전년보다 20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배당액은 560억원으로 순이익(112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CEO의 연봉도 은행권 최고치다. 지난해 은행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은 근로소득 25억4000만원과 퇴직금 46억2000만원 등 모두 71억6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마이너스 실적에도 고배당을 실시한 곳도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은 800억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에도 영국 본사에 1500억원의 중간 배당을 시행했다. 앞서 SC금융은 작년 한 해 동안 794억원의 당기순손실(지배주주지분 연결 기준)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SC금융 측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과잉, 대출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영업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해 진행된 비즈니스 조정과 재편 작업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간 배당은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다. SC금융 지분은 영국 본사가 100%를 보유해 배당금은 전액 본사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SC금융은 내년 초까지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배당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작년 초 퇴임한 리처드 힐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에게 급여와 상여금, 복리비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줬다.

이밖에 하나금융지주는 주당 2831원의 현금배당을 책정, 자회사인 외환은행의 순이익 중 40%를 배당으로 챙겼다. 이는 국민(22%), 우리(28%), 신한(31%)은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배당 성향이다.

앞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는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금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고배당으로 내부 유보가 이뤄지지 못한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외환은행 순익 3651억원 중 40%인 1464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간 것이다.

이에 외환은행 노동조합 측은 "은행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액배당"이라며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외환은행의 영업과 성장동력 확충에 쓰여도 모자랄 1464억원의 현금을 일거에 빼내갈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을 앞두고 배당이 무효인 상태로 4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하나지주 주가(株價) 등 김정태 회장의 경영실패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들의 거센 비판을 미리 방어하려는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백아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KB카드-마스터카드, 핀테크 활성화 추진 /KB국민카드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스터카드와 손을 잡았다.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왼쪽)과 최동현 마스터카드코리아 사장(오른쪽)이 '글로벌 핀테크 결제 관련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경제 활력 위해 '위험감수자' 역할 할 것"

홍기택 산은 회장, 창립 61주년 기념식서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1일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과감한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위험감수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산은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내적으로는 생산과 투자·수출 감소를, 외적으로는 환율전쟁과 경제패권 다툼 우려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산은이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으로서 돌격선인 거북선처럼 과감한 '위험감수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창조금융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회장은 또 "금융산업의 '담쟁이' 역할을 수행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런던과 싱가포르, 홍콩 등을 거점으로 세계시장 진출과 업무 확대에 박차를 가해 금융영토를 넓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선진은행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셀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창조적인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에 걸맞는 시스템과 규칙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아란기자

소비자물가 0.4% 상승… 넉달 연속 0%대

담뱃값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0%대를 나타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린 데 따른 물가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0.4%-0.58%)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10월 0.9%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12월 0.8%, 올해 1월 0.8%, 2월 0.5%로 내려왔다. 이번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지난 1999년 7월 이래 15년8개월 만에 최저치다.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이 지표 역시 지난해 9~12월에는 4개월 연속 1%대였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0.8% 떨어졌고 신선식품지수도 2.0% 내려갔다.

신선식품 중 신선어개(3.0%), 신선채소(4.7%), 기타신선식품(13.0%)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올랐다.

그러나 신선과실은 12.0% 하락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년 전보다 1.2%, 한달 전보다 0.3% 각각 하락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8% 내렸다. 국산쇠고기(6.4%), 파(25.0%) 등은 올랐으나 돼지고기(-4.3%), 토마토(-14.5%), 굴(-13.9%) 등이 내린 영향이다.

공업제품은 작년 같은 달보다 0.5% 하락했는데 휘발유(-19.7%), 경유(-21.5%) 등 국제적인 저유가 영향을 받은 유류제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다만 인상된 담뱃값이 물가 하락 폭을 줄였다. 국산담배는 83.7%, 수입담배는 66.7% 각각 올랐다. 담뱃값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0.58%포인트가량 올린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14.0%)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0% 떨어졌다.

/[illegible]기자

"글로벌·실행력 기반, 현장 중심 경영 펼칠 것"

조용병 신한은행장 G.P.S. Speed-Up 제시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1일 "글로벌 현지화와 치밀한 전략, 디테일한 실행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 경영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리딩뱅크 위상 확립과 월드 클래스 뱅크 기반 구축, 신한문화 계승 등 3대 경영방침 구현을 위해선 'G.P.S. Speed Up'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G.P.S. Speed-Up'은 ▲세계화(Globalization) ▲플랫폼(Platform) ▲세분화(Segmentation) ▲신속한 실행(Speed Up)을 의미한다.

조 행장은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바탕으로 신한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밀한 전략과 디테일한 실행으로 경영 활동 전반의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영업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더욱 가속화해 고객과 은행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illegible]

KB금융 새 사외이사진, 지배구조 개선안 재논의?

이달 말 이사회 개최…CEO 연임 계획안 등 주요 쟁점될 듯

KB금융지주가 지난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KB금융은 당초 새 사외이사가 구성되는대로 현직 CEO 연임 우선권을 비롯한 지배구조개선안을 재논의키로 한 바 있어 기존 안이 통과될지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달 말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2월 27일과 지난달 9일 두 번의 이사회를 열고 최고 경영자(CEO) 경영승계 계획안 논의했지만 가결시키지 못했다.

지배구조개선안 중 쟁점 부분은 CEO 경영승계 계획이다. 1일 KB금융은 금융당국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최종 보고했지만 차기 회장 선임 시 현 회장에게 연임 우선권을 주는 CEO 승계 계획안은 보고에서 빠졌다.

경영승계 계획안은 KB금융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치권 낙하산 등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혁안이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이너서클', '배타적 승계구조' 등의 비판이 외부에서 제기되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 때문에 이달 말 정기이사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이 재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주총에서도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CEO 승계프로그램"이라며 "현 CEO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을 때 연임 우선권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전임 이사들이 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금융 내부에서도 이미 이사회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차례 이사회와 지속적인 의견 조율로 기존 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며 "다만 전임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차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해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KB금융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달 말 정기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실적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지배구조개선안을 비롯한 추가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개선안의 경우 단기간에 마무리할 문제는 아니다"며 "새 사외이사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금융 이사회 구성원은 최영휘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인 윤종규 KB금융 회장, 이홍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 등 총 9명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부산銀, 창조금융·中企지원팀 신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1일 새로운 사명인 'BNK'의 출범에 따라 창조금융지원팀과 중소기업지원 센터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은 기술금융 추진 확대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에게 경영 지원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TFT로 운영 중이던 기술금융 조직은 격상, 창조금융지원팀으로 신설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금융부문에 대해 부서별로 업무 영역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전담조직 신설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금융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기업경영지원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등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기업경영지원팀'은 경영지원과 기업 개선 등을 돕는다.

마케팅과 CS와의 연계를 통한 영업력 강화를 위해선 고객만족팀을 마케팅부 소속의 부문조직으로 꾸렸다. 이밖에 사회공헌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경영기획본부 내에 지역발전홍보부도 신설했다.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은 "새로운 사명인 'BNK' 출범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글로컬 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우리카드, 어르신위한 후원금 쌀 전달

롯데손보, 최대 1억3000만원 보장 암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1일 암 진행 단계별로 보험금을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무)롯데 안심건강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암의 진행 단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던 기존암 보험과는 달리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치료비의 부담이 큰 특정암(간암, 폐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진단 또는 4기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암 진단비를 포함해 최대 1억3000만원의 진단비를 제공한다. 암 발병 시 가족을 위한 생활자금도 5년간 매월 지급한다.

또한 암 진단 시 차회 이후의 보장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 80%이상 후유 장해 시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기 납입한 보험료까지 지원한다.

가입연령은 15~65세까지다. 1종은 100세 만기로 10년~30년납 중 5년 단위로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2종 정기 보장형은 10년납 혹은 20년납이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 팀장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있지만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암의 진행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생활자금까지 지급해 암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작년 은행지주, BIS비율 13.68%

BS·하나금융 하위권

지난해 국내은행 지주회사의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BS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자본비율이 지주 내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말 은행지주회사의 BIS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은행지주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3.68%로 전년말보다 0.26%포인트 내렸다.

같은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1.16%로 0.03%p 떨어졌고 보통주자본비율은 0.41%p 상승한 10.49%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산한 씨티와 우리, 산은지주를 제외하면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자본비율은 각각 0.27%p, 0.06%p, 0.03%p 하락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0.41%p 상승에서 0.03%p 떨어지는 결과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자본은 당기순이익 내부유보(5조1000억원)와 증자(0800억원), 비지배지분 증가(4조원) 등으로 모두 8조원이 증가했다.

앞서 농협은 우리투자증권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인수했고 BS금융이 경남은행을, JB금융이 광주은행, KB가 우리파이낸셜을 편입했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자회사 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와 대출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74조원 커져 자기자본비율도 내렸다.

한편 지주사별로는 SC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5.87%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곳은 BS금융(11.91%)이다.

하나지주는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0%)에 비해 내부유보 등으로 자본증가율(5.3%)에 높아 총자본비율이 .35%p상승했다. 또 DGB지주는 위험가중자산 증가(6.5%)와 신종자본증권 중도 상환 등으로 총자본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2.14%p)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지주사의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는 2016년부터는 바젤 III 도입에 따른 단계적 추가자본 부과, 금리인하로 수익성 둔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증권 발행 등을 포함한 자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an1(?)

작년 상장사 순이익 악화

삼성전자 부진 영향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 부진에 따라 상장사들의 전체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 576개사 중 분석이 가능한 496곳의 2014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상장기업 매출액은 1821조4220억원으로 전년보다 0.43% 감소했다. 순이익은 61조1472억원으로 전년보다 6.96% 줄었고, 영업이익은 91조4222억원으로 12.69% 감소했다.

다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1615억원으로 전년보다 0.91% 늘었다. 영업이익은 2.25%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7.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06조2059억원으로 전년보다 9.83% 감소했다. 순이익은 23조3943억원으로 23.23% 줄었고, 영업이익도 31.97%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전체 상장사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5.1%에서 지난해 27.4%로 줄어들었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 496곳 중 364곳(73.39%)이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132곳(26.61%)은 적자를 냈다. 적자 지속 기업이 84곳(16.94%), 적자 전환은 48곳(9.68%), 흑자 전환 기업은 55곳(11.09%)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코스닥시장 결산실적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낸 코스닥 상장사 671곳의 매출액은 12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다. 영업이익은 6조원으로 4.31% 감소했고, 순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7.57% 증가했다.

분석대상 기업 중 437곳(65.13%)이 흑자, 234곳(34.87%)은 적자를 기록했다.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한 940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0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32% 줄었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 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6000억원으로 21.60% 급증했다.

/김보배기자

證 신용거래 수수료 잇따라 내려

보증금도 폐지·신용융자 잔고 불어날 듯

개인들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신용거래의 수수료가 잇따라 인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신용거래 융자액이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이상의 신용거래 이자율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용거래 고객에게 연 6.4%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31~60일과 61~90일에 적용된 이자율은 각각 연 7.4%, 연 8.5%로 내려갔다.

KDB대우증권도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평균 0.55%포인트 인하했다. 동부증권 역시 지난 2월말 신용거래 이자율(연 4.9~9.9%)을 최대 30% 떨어뜨렸다.

전문가들은 "이들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자율을 낮춘 것은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형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자율을 내림에 따라 향후 이자율 인하에 동참하는 증권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계좌를 만들 때 내야 하는 보증금도 사라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초 신용거래계좌 설정 시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려고 올해부터 신용거래 설정 보증금의 예치 규정을 없애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은 지난달 3일자로 개정됐고 증권사별로 시행일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신용거래 보증금을 없앴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동부증권도 각각 지난달 27일과 12일 바뀐 규정을 적용했다.

신용거래 이자율 인하에 보증금 폐지까지 더해져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유동성 장세로 뜨거워지자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신용거래 잔고금액은 6조4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 최대 금액이다.

유가증권시장이 2조9944억원을 기록해 3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코스닥시장의 융자액은 3조4761억원에 달한다.

/정연우기자 mint@metroseoul.co.kr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2020선 후퇴 코스피가 1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전날보다 12.58포인트(0.62%) 하락한 2028.45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배당주 중장기 투자 유효"

키움증권은 1일 "배당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서영완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간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기업들의 배당이 발표되고 있다"며 "이들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지난해 배당금 합계는 약 15조3000억원으로 전년(13조7000억원)대비 약 1조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올해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정책으로 상장 기업 배당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낮은 금리 상황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보다 높아질 수 있고 현 시점에도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SCI 기준 국내 배당수익률은 1.46%로 최근 상승하고 있지만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보다 배당이 확대될 여지가 높은 만큼 배당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다.

그는 그러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시장 상황이 좋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며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주기가 짧은 것보다는 긴 흐름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김보배기자

수도권 월세 한달만에 하락 전환

0.1%↓… 전국은 보합세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 가격이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국은 4개월 연속 보합세를 연출했다.

한국감정원은 3월 8개 시도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 매물 증가 여파로 0.1% 하락했다. 재건축 이주수요와 봄철 이사수요가 맞물리며 지난달 23개월간의 내림세를 종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과 경기는 0.1% 하락한 반면, 서울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안에서도 강북지역은 0.1% 내렸지만 강남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지방5대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광주·대전·울산 등 3곳은 0.1%씩 월세가격이 올랐다. 전세 물건 부족으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데다 대학가·혁신도시 등에서 배후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는 0.1% 뒷걸음질쳤지만 그 외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은 보합으로 조사됐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삼성물산 아메드 부사장, 美토목학회상 수상

삼성물산은 빌딩사업부 빌딩영업본부장 아메드 아브델라자크 부사장(Mr. Ahmad Abdelrazaq·사진)이 미국토목학회가 수여하는 '2015년 어니스트 E. 하워드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아메드 부사장은 세계 최고층 부르즈칼리파의 움직임 유효 검증 등 초고층 실무를 바탕으로 한 학술활동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메드 부사장은 삼성물산 초고층 복합빌딩 부문을 이끌며 현존하는 최고 빌딩인 828m 부르즈칼리파를 비롯해 각종 초고층 프로젝트의 디자인과 구조설계, 건축작업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싱가포르 탄종파가 빌딩과 말레이시아 스타레지던스 빌딩 등의 기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아메드 부사장의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층 빌딩에서 삼성물산이 가진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삼성물산이 보유한 차별화된 초고층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국산車, 3월 판매실적 호조… 르노삼성 2배 ↑

현대, 국내외서 43만6819대… 전년比 0.8% 증가
쌍용 '티볼리' 효과… 3개월새 1만2000대 수준 회복

국내 완성차업체 5사가 지난달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서 양호한 판매실적을 거뒀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성적을 올렸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사진) 효과를 톡톡히 봤다.

1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5만7965대, 해외 37만8854대 등 총 43만681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규모다. 국내판매는 0.3%, 해외판매는 0.9% 늘었다.

현대차는 올해에도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차,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견인에 힘쓰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4만2309대, 해외 23만4351대 등 총 27만6656대를 판매했다.

내수판매는 카니발과 쏘렌토 등 레저용차량(RV)의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해외시장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전략 차종들에 대한 판매가 전년 대비 0.7% 늘며 전체적으로 1.8% 증가했다.

해외판매는 지난해와 비교해 국내공장 생산 분이 내수판매 증가에 따른 물량감소 요인으로 4.5% 감소됐지만, 해외공장 생산 분이 5.9% 증가하며 국내생산 감소를 만회했다.

올해 1분기 기아차 판매실적은 국내 11만4512대, 해외 63만6650대 등 총 75만1162대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1만3223대, 수출 4만1082대 등 총 5만4305대를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3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며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쉐보레 크루즈, 말리부, 트랙스, 올란도를 비롯해 경상용차 다마스·라보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내수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크루즈는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한 1812대가 판매됐다.

디젤 및 가솔린 모델의 판매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말리부의 3월 판매는 1433대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 6004대, 수출 1만5343대로 전년 대비 98% 늘어난 총 2만1347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은 내수에서 대부분 차종의 판매가 늘어 전달 대비 15.4% 증가한 6004대를 판매했다.

SM3 Neo는 전달보다 15.2%가 늘어난 1583대가 판매됐다.

르노삼성은 고급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6년형 SM3 Neo를 출시해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쌍용자는 지난달 내수 7719대, 수출 5151대를 포함 총 1만2870대를 판매했다.

티볼리 출시에 따른 내수 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전월 대비 32.4% 증가한 수치다.

쌍용자는 지난해 12월(1만2980대) 이후 3개월 만에 월 판매 1만2000대 수준을 회복했다.

내수 판매는 7000대를 넘어서며 지난해 12월(8261대)이후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은 티볼리 수출을 개시하며 지난해 10월(6143대) 이후 5개월 만에 5000대 판매를 넘어 전월 대비 63.4% 증가했다.

최종식 쌍용자 대표이사는 "티볼리의 본격적인 수출과 함께 지역별 론칭 행사 등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성장세에 대응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개사의 지난달 총 판매량은 80만1998대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국내 판매량은 작년보다 4.8% 늘어난 12만7216대를 기록했다.

수출 물량은 작년보다 0.5% 늘어난 67만4781대를 판매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착한 가격' 2015년형 스포티지R 본격 판매

인기있는 트림 사양 조정
기존 모델比 40만원 인하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소형SUV 대표주자 스포티지가 2015년형 모델을 가격대비 알찬 트림의 사양으로 재편했다.

기아자동차㈜는 1일 고객 선호 사양으로 구성 된 신규 트림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트림의 사양을 조정해 착한 가격을 갖춘 '2015년형 스포티지R'(사진)을 본격 시판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아자는 2015년형 스포티지R을 출시하면서 고객 선호 사양인 ▲운전석 통풍시트 ▲2열 레시드 시트 ▲전자식 룸미러와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등을 기본 장착하여 사양과 가격을 최적화한 신규 트림 '에이스'를 선보여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혔다.(※2륜구동 디젤 기준)

또한 기아자는 스포티지R 구매 고객들 중 가장 많은 고객이 선택한 트렌디 트림의 사양 일부를 조정해 기존 모델 대비 40만원을 인하하는 등 착한 가격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18인치 알로이 휠 ▲고급형 오디오와 후방카메라 등 고급 편의사양을 기본화하고도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했다. 2015년형 스포티지R 의 판매가격은 ▲2륜구동 디젤 모델이 2235만~2835만원 ▲4륜구동 디젤 모델이 2650만~3015만원 ▲2륜구동 가솔린 모델이 2210만~2330만원이다.(자동 변속기 기준)

/김종훈기자 fun@

“내가 바로 SM3 Neo”

르노삼성, 2016년형 출시 트림별 기본옵션 추가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프랑수아 프로보)는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6년형 SM3 Neo를 1일부터 판매한다.

사측에 따르면 2016년형 SM3 Neo는 트림별로 기본옵션을 추가했다.

LE 트림이 부활하면서 ▲전자식파킹브레이크(E-PKB) ▲17인치 글로시 블랙 투톤 일로이 휠 ▲프런트 하단 듀얼 크롬바 등 고급 사양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RE 트림에는 선택품목으로 제공하던 블랙 가죽시트를 가격변동 없이 추가했다.

New SM7 Nova, SM5 Nova에서 적용된 바트 미라컴 시스템을 RE트림에 선택옵션으로 제공한다.

SE트림은 ▲크롬베젤 헤드램프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레인센싱 와이퍼 ▲글로시 블랙 인테리어 같은 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그레이 색상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6년형 SM3 Neo는 연비가 15.0 km/L(복합연비 기준) 수준이다. 오토 클로징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스마트 커넥트, 보스(BOSE) 사운드시스템 등 프리미엄 옵션을 갖췄다.

세부 가격(부가세 포함)은 ▲PE 1590만원 ▲SE 1740만원 ▲LE 1890만원 ▲RE 1998만원이다.

/이정필기자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프리미엄 에디션 출시

디자인 보강 실용성 강화

한국지엠은 2015년 쉐보레 트랙스 프리미엄 에디션 모델을 출시하고 1일 판매에 들어갔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내외관 디자인을 보강하고 실용성 있는 아이템으로 상품성을 올렸다.

2015 트랙스 프리미엄 에디션은 18인치 알로이 휠과 크롬 테일 게이트 핸들을 적용했다.

트랙스 전용 프리미엄 플로어 매트와 깔끔한 트렁크 공간을 연출하는 카고 트레이를 채택했다.

프리미엄 에디션 출시와 함께 트랙스 전 모델에 크롬 프론트 그릴을 기본 적용했다.

조인상 한국지엠 상품마케팅본부 상무는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서 쉐보레 트랙스가 가진 차별화된 스타일과 실용성을 배가하는데 주력했다"며 "가솔린 터보 엔진의 정숙성과 주행성능,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형 SUV의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 쉐보레 트랙스의 가격(자동 변속기 기준)은 ▲LS 1955만원 ▲LS 디럭스 패키지 2030만원 ▲LT 2105만원 ▲LT 레더 패키지 2185만원 ▲LTZ 2305만원 ▲프리미엄 스페셜 에디션 2320만원이다.

/이정필기자

닛산 '무상점검 캠페인'

한국닛산㈜은 1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전국 14곳의 닛산 공식 서비스센터 및 지정점에서 '닛산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 모터쇼 기간 동안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시승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겨울철 발생했을 수 있는 차량의 손상을 점검하고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봄철 드라이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종훈기자

삼성 사장단, SNS 부작용 '열공'

'SNS의 10가지 얼굴' 강연

삼성그룹 사장들이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부작용에 대해 열공했다.

삼성 사장단은 1일 오전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SNS의 10가지 얼굴'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은 것이다.

이재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SNS가 갖은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글쓰기와 책 읽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이 전했다.

이 교수는 SNS의 10가지 얼굴을 ▲사회관계망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권력행사의 장 ▲정보전파의 노드 ▲빅데이터 생산공간 ▲컴퓨터 연산을 통한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곳 ▲문화 ▲소프트웨어 ▲글쓰기 공간 ▲비평소로 정리했다. 특히 정신적인 병리현상을 언급하면서 뼈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탈구'란 표현을 쓰면서 "SNS에 깊게 빠져들면 생각을 하기보단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추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 부사장은 이와 관련 "이 교수가 SNS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다"며 "SNS의 병폐를 막기 위해 이 교수는 어른 세대들이 글쓰기와 책 읽기 중심의 과거 공부하던 방식을 젊은 세대에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송병형 기자 [illegible]

갤럭시S6, 中서 샤오미 벽 넘을까

반값에 사양 비슷 '암초'
온라인 마켓 약세도 발목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선 삼성전자가 예상밖의 암초를 만났다. 바로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샤오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월드투어를 개최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달 31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홍콩(4월 2일), 상하이(3일), 선양(7일), 청두(8일), 우한(9일), 시안(10일) 등 전역을 순회하는 론칭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와 애플에 밀려 스마트폰 판매량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갤럭시S6로 자존심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의 경우 80% 이상의 스마트폰 수요는 저가형 제품에 몰려 있다. 특히 제품 구매 방식도 매장을 방문하기보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이동사를 선택해 개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1000여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판매점을 의식해 온라인마켓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샤오미가 삼성전자 첫 론칭일인 지난달 31일 창사 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을 위한 분홍빛 스마트폰부터 초저가 LTE 스마트폰, 스마트 지팡이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핑크 색상의 '미 노트 핑크 에디션'이다.

이 제품은 코닝 고릴라글래스3를 이용한 3D 커브드 글라스를 후면에 탑재했다. 5.7인치 풀HD 화면과 퀄컴 스냅드래곤801 프로세서, 3GB RAM, 1300만화소 카메라, 16GB 저장공간 등을 갖췄다. 가격은 2499위안(약 45만원)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6(85만8000원)와 갤럭시노트4(92만3000원)의 절반 가격이다. 가격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이 홍미노트를 구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S6의 높은 기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민희 아이엠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부품사업에서 기술력 향상, 시장점유율 상승 등을 볼 때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실적차별화 요소가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갤럭시S6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 같다"고 31일 말했다.

특히 글로벌 IT수요 둔화 영향에서 삼성전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重, 2만11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2만1100TEU(1TEU는 약 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중공업은 홍콩 OOCL사로부터 2만1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9억5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2일 일본 MOL사로부터 2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한 지 한 달 만이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발주된 2만TEU 이상 컨테이너선 12척 중 10척을 수주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6척의 옵션이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대덕선박연구센터에 보유한 예인수조와 공동수조 등 각종 시험설비를 바탕으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함께 전략 운항계획에 최적화된 선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 폭 58.8m으로 삼성중공업이 앞서 수주한 2만100TEU급 선박과 동일하다.

선상에 컨테이너 1단을 추가로 적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000개를 더 실을 수 있다.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프로펠러와 러더 벌브, 스테이터 등 각종 에너지 절감장치도 장착될 예정이다. 선박의 납기는 2017년 11월까지다.

/이정필 기자 [illegible]

삼성, PC시장 초경량 경쟁 재점화

무게 90% 줄인 SSD 선봬

국내 PC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무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무게는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내놓고 전 세계 울트라슬림 PC용 메모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울트라북 시장에 또다시 초경량 경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차원 수직구조 낸드플래시(V낸드)에 기반한 울트라슬림 PC용 SSD '850 EVO'를 53개국에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모델은 'mSATA'와 'M.2' 등 두 종류로, 무게가 각각 최대 9g과 7g이다. 기존 2.5인치 SSD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차세대 V낸드 기반 '850 EVO' 신규 라인업

읽기·쓰기 속도는 각각 SATA(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SSD 최고 수준인 초당 540메가바이트(MB)·500MB다.

터보라이트(TurboWrite) 기능이 있어 임의쓰기 속도는 8만8000 아이옵스(IOPS·Input Output Per Second), 임의읽기 속도는 9만7000 IOPS로 원활한 멀티태스킹 작업을 지원한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삼성전자는 데스크톱 PC, 노트북, 울트라슬림 노트북 등 모든 PC용 V낸드 SSD 라인업을 갖췄다.

/정문경 기자

한화, 동반성장 실현

김승연 회장, 교향악축제 16년 후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함께 멀리 라는 동반성장 의미에서 후원하는 예술의전당 대표 기획프로그램인 '한화와 함께하는 2015 교향악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한화와 함께하는 2015 교향악축제'는 1일 임헌정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박영민이 이끄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폐막 연주까지 총 19일간 전국의 18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클래식의 향연을 펼친다.

2015 교향악축제

교향악축제는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이래 서울과 지방간의 음악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시도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임으로써 클래식 음악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다.

최근 기업 메세나활동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 등을 통한 일회성 지원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정부의 문화대국 육성방침이라는 큰 틀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매개체로 그 의미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화는 지난 2000년부터 16년동안 지속해온 예술의전당과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교향악축제는 양사 간의 대표적인 메세나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한화는 국내 굴지의 메세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장윤희 기자 [illegible]

30년 인연 업체에 소화기사업 기술이전

한화(대표이사 심경섭)는 1일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에서 강윤파인엑스(대표이사 김춘식)와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사업 기술이전 협약식을 열었다. 고체에어로졸은 첨단 자동소화 시스템이다.

한화는 2005년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08년부터 생산한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사업 관련 기술을 동반성장 차원에서 강윤파인엑스에 이전했다. 또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사업 관련 특허를 별도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발 노하우 및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강윤파인엑스는 3년 내 연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해 기존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1986년도에 한화에 X-ray 검사장치를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해 올해로 3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한화는 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고 극복해온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한화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사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한화 본사에서 열린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사업 기술이전 협약식에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장(왼쪽)과 김춘식 강윤파인엑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서승범 기자

김창근, SK이노 영업익 급락에도 연봉은 두둑

매출액 전년比 9.0% 감소에도 27억6500만원 받아
SK그룹 전문경영인 중 최고… '도덕적 문제' 논란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전문경영인 중에서 김 의장이 2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장은 급여 17억6000만원과 장기성여금 10억원을 받았다.

SK는 연봉의 최대 200%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매출액은 전년(2012년) 대비 9.0% 줄어든 66조393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도 1조4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로 감소했다.

지난해 SK그룹의 계열사 중 유일하게 최대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 박성욱 사장은 13억6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사장의 급여는 6억4000만원이었지만 상여금으로 6억9800만원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옥중에 있고 그룹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 의장은 회사와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기는 커녕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것은 내규상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상당한 규모의 연봉을 지급받은 것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며 "경상 회사가 어려우면 고통을 함께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매출 뒷걸음질에도 연봉이 다소 늘었다. 장재영 신세계 대표는 지난해 매출 뒷걸음질에도 7억6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2013년(7억2100만원) 대비 4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정용진 부회장은 등기 임원이 아니어서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실적 악화에도 지난해 홍원식 회장의 보수총액은 전년도보다 20% 많은 15억7642만원이었다. 전액 급여로만 지급됐으며 상여금은 없었다. 2013년 홍 회장의 연봉은 13억1469만원이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매출 1조151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감소했으며 영업적자는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났다.

/송병준기자 sjh@metroseoul.co.kr

KT "야구도 보고 갤럭시S6도 써보세요"

KT는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 개장과 함께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S6-기가(GiGA) 와이파이(WiFi)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KT위즈 야구 관람이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갤럭시S6'를 체험해보고 있다. /KT제공

'착한 기업'에 경제적 보상 길 열린다

최태원 SK회장 저서로 제안
조기재원 SK 지원으로 출범

'좋은 일 하고 돈 번다'는 평범한 담론이 사회 제도로 첫 도입된다.

사회문제의 혁신적인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낸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를 위해 출범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은 1일 서울 종로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허리우드 실버영화관'에서 정부기관, 사회적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SK그룹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투자, 사회적기업연구원, SK그룹 등이 참여하여 만든 기구다.

1일 서울 종로구 허리우드극장에서 열린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 출범 행사'에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왼쪽 원쪽 두번째부터), 인종영 동반성장위원장과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단장은 프로젝트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계를 대표해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대표와 SK그룹을 대표해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최태원 SK 회장이 10년 가까운 기간에 사회적 기업 활동을 정리한 자신의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Social Progress Credit'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서적이 출간된 이후 다양한 사회적기업계 인사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끝에 본격적인 시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인종영 동반성장위원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훈기자 fun@

"돈 걱정 말고 컨설팅 받으세요"

KT '올레중소사업자' 개편

KT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통신 솔루션 상품 150종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웹사이트인 '올레중소사업자'를 대폭 개편해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올레중소사업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던 기존 '올레소호'에 중소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추가해 확대한 것으로, 상품 소개와 컨설팅 신청, 경영에 유익한 컨텐츠 제공 등 중소사업자에 최적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컨설팅 신청을 클릭하면 KT의 전문 컨설턴트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영외로 가입해 상품을 사용했던 개인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대기업과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기 부담스러웠던 중소사업자들에게 알맞은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KT는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인기상품인 사업장 전용 '올레 HD급 영상보안(CCTV-출동)' 상품인 'CCTV'와 꼭 필요한 통신상품들을 저렴하게 묶은 'SOHO성공팩'과 관련된 이벤트를 함께 벌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올레중소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훈기자 hanuy@

KT는 1일 중소사업자를 위한 통신 솔루션 상품 150종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웹사이트인 '올레중소사업자'를 대폭 개편해 오픈했다. /KT제공

두산重, 강릉화력발전소 주기기 수주

보일러·터빈 등 7100억 규모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일러, 터빈 등 주기기(각 2기)를 약 7100억원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에 건설되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원전과 맞먹는 1000MW급 대형 발전소다.

발전효율이 높은 초초임계압 발전소로서 1호기는 2019년말, 2호기는 2020년 6월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진행된 국제경쟁입찰에서 일본 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날 발주처로부터 착수지시서(Notice To Proceed)를 받았다.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자체 개발한 1000MW급 고유 모델이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올해 국내에서 추가로 발주 예정인 3기의 1000MW급 화력 발전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며 "향후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1000MW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일기자 nntan@

홈플러스 파격 할인, 결국은 납품업체 쥐어짜기

자체 마진 투자한다더니… 중복 할인·행사 상품 납품가, 기존보다 10% 더 낮춰 공급

고객 정보 불법 유출로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가 행사가 결국은 납품업체들만 쥐어짜는 식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소비자가 많이 찾는 500가지 신선식품을 '소비자 물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체 마진 1000억원을 들여 10~30%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창립 16주년을 기념해 '확반정신'이란 프로모션으로 신선식품을 비롯한 우유, 가공식품 등을 기존 가격보다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에 신선식품을 제공하겠다는 이미지 쇄신 마케팅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홈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저가 행사가 본사의 자체 마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마진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마진을 줄여 상시 할인 판매한다고 밝힌 500가지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중복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체들의 마진을 줄여가면서 저가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확반정신' 행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평상시 홈플러스에서 20%의 수수료를 떼간다. 하지만 행사를 시작하며 납품 단가의 10%를 추가로 낮춰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 행사하는 것이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홈플러스 납품업체 관계자도 "업체 전체 매출에 있어 마트 비중이 크다보니 납품 가격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아있는 재고 물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출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마트측이 하라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홈플러스의 창립 16주년 기념 '확반정신' 프로모션 행사 /홈플러스 제공

또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할인 행사를 하면서 생산원가를 따져서 판매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하나 가격을 올리지 않고 마트에서 팔고 싶은 판매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어 힘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또 "대형마트의 눈치를 보고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업체가 생기면 그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가 바뀐다"며 업체 변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농·어민들로부터 신선식품을 경매로 구입해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중간유통 업체들도 울상이다.

한 중간유통 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 납품단가를 다운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생산자와 중간유통 업체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연중 상시 가격 인하를 한다고 명시했던 신선식품 500개 품목은 자체 마진을 줄여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되었다. 하지만 16주년 창립기념 품목은 자체 마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통상 큰 행사를 할 때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과 이미 계약을 맺어 마진을 서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협의를 통해 해당 행사 기간에는 각각 품목 단가를 낮춘다"고 밝혔다.

/이홍원기자 · 박현정기자

롯데리아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광화문점에서 '강정버거' 출시 기념 이벤트를 열고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CJ, '메티에'로 중국 커피 시장 공략

中 호텔렉스 카페쇼서 철저한 현지화로 호평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 이하 CJ)이 커피 부재료 전문 브랜드 '메티에(METIER)'를 앞세워 중국 커피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5 중국 호텔렉스 카페쇼'에 참가해 'CJ제일제당 메티에 체험관'을 운영했다.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한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샤그나까 메뉴 코너', '커피전문점 코너', '베이커리카페 코너' 등을 운영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자체 개발 풍인 시럽 40종, 파우더와 소스 20종 등 총 60여 종의 제품은 철저한 현지화로 인해 호평을 받았다.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는 전문성'이라는 뜻의 '메티에' 브랜드 명과 부합한 체험관이었다는 평이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CJ제일제당은 중국 내 시장 성장성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메티에 판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음료 소비가 많고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화동지역을 비롯, 북방 및 내륙 지역 등 각 지역별로 메티에 홍보회를 열어 매출 극대화를 꾀한다.

/김성현기자

디자이너 컬렉션 쇼핑과 구경을 동시에

CJ오쇼핑, 롯데百 팝스토어

CJ오쇼핑(대표 변동식)은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2층에서 패션 편집스토어 '퍼스트룩'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태용·박승건·스티브J&요니P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컬렉션의 봄·여름 신상품을 판매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고태용 디자이너 비욘드클로젯의 프리미엄 스웨트셔츠(4만9000원) ▲박승건 디자이너 '푸시버튼'의 트렌치 봄자켓(8만9000원) ▲스티브J&요니P의 데님 롱셔츠(9만8000원) 등이다.

쿠팡 "빅맥 하나 사면 하나 더"

쿠팡(대표 김범석)은 맥도날드와 제휴해 빅맥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단품 1개를 추가 제공하는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맥도날드 빅맥 1+1 쿠폰은 2일 오전7시부터 판매되며 총 40만명에게 선착순이다.

쿠폰 사용 기간은 14일까지며 런치 타임을 포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인 1매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맥도날드 매장(휴게소·인천공항 제외)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할랄식품 수출 과제 선정

인증제품 국내유통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농수산식품 수출가격협의회와 할랄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할랄식품 수출 소비 확대를 위한 8대 과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할랄 도시락 공급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에게 인정받아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할랄식품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 할랄 도축장 도계장을 육성하고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 전용 생산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현대화자금 48억원을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할랄식품 생산에 필요한 무슬림 도축인 고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할랄인증기관을 평가 관리하는 제도 구축, 할랄식품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는 '할랄 정보 디렉토리' 구축, 할랄식품 전문가 양성, 유망 할랄식품 발굴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뱅가드'에 PB 수출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중국 최대 유통업체 뱅가드와 손잡고 협력회사 수출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1984년 설립된 뱅가드는 중국 100여개 도시에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쇼핑몰·전문 브랜드숍 등 매장 4100여개를 운영하는 거대 유통업체다.

양사는 우선 꽃샘식품, 국제제과, 청우식품 등 중소업체, 롯데칠성, 크라운, 보령메디앙스 등 대기업을 포함, 총 48개 홈플러스 PB 협력회사 상품을 중국 뱅가드 매장에서 판매키로 했다. 김·스낵·비스킷·음료·소스, 유아위생용품 등 현재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150여 개 품목이다.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9-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홈플러스 '크랩 페스티벌' 1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미국산 랍스터, 베트남산 크레이피시, 베트남산 블랙타이거 새우 등을 선보였다. 홈플러스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140개 전 점포와 온라인마트에서 '크랩 페스티벌'을 열고 다양한 갑각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서울은 지금 '비즈니스호텔 전쟁'

토종·글로벌 체인까지 경쟁 심화…질 저하 우려

올해 서울 도심에 비즈니스호텔이 줄줄이 문을 열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주 고객층 샐러리맨은 벗어나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명동과 동대문,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과 경기도 동탄에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를 운영 중인 신라호텔은 오는 5월 서대문구 미근동과 9월 마포구 도화동에 신라스테이를 추가로 오픈한다. 신세계조선호텔은 스타우드 호텔&리조트와 손을 잡고 객실 342개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인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을 5월 서울역 옆에 개장한다.

롯데호텔은 10월 중구 장교동에 비즈니스호텔인 롯데시티호텔 명동을 435실 규모로 열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중구 충무로 세종호텔 인근에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브랜드인 라이프스타일 호텔 명동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

글로벌 체인 브랜드도 국내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코르그룹은 지난달 서울 명동역 인근에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을 열었다.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2017년까지 서울 동대문과 부산에 이비스 호텔을 추가로 열고 국내 최대 규모로 오픈 예정인 용산 호텔 단지에서도 비즈니스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얏트 호텔은 올해 중반 동대문구에 중저가 브랜드인 하얏트 플레이스를, 일본계 솔라리아 니시테쓰호텔 서울이 10월 명동에 등지를 틀 예정이다.

호텔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늘고 있어 비즈니스 호텔 사업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비즈니스호텔은 올해 55개 호텔 총 8255개의 객실이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2013년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 호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하락을 우려해 비즈니스 호텔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비즈니스호텔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면서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 bora[illegible]@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브로드웨이 96번가점 출점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주거지인 어퍼웨스트사이드 96번가에 맨해튼 지역 5번째 파리바게뜨 매장(사진)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브로드웨이 96번가점은 353.1㎡ 규모의 카페형 베이커리로 고급주택과 오피스가 혼재된 복합상권에 위치하고 있다.

어퍼웨스트사이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허드슨강과 센트럴파크에서 가까우며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인근에 시티은행, 체이스은행, BOA(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등 주요 은행지점과 스타벅스,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등 글로벌 외식브랜드가 밀집해있다.

파리바게뜨는 올 하반기 8 하반기 미국 내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이어트클리닉서 판매하는 초콜릿?

식품업계-병원·약국 공동 마케팅으로 '윈윈'

식품업계와 병원, 약국과의 공동 마케팅이 한창이다. 식품업계는 건강지향형 이미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병원과 약국에서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BOBSNU(이하 밥스누)에서 최근 출시한 초콜릿 '슈이드렌'은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에서 판매한다.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 '리셋 클리닉'(대표원장 박용우)은 밥스누와 함께 다크 초콜릿을 개발했다.

리셋에서 판매하는 '슈이드렌 카카오 72%'는 설탕을 넣지 않고 타이당에서 유래한 저칼로리당 성분 '말티톨'을 이용해 단맛을 냈다. 말티톨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으므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아 비만환자 및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되고 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볶음처리를 하지 않는 공정으로 폴리페놀 등 카카오의 생리활성 물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카카오 본연의 맛을 살렸다.

오리온 '닥터유 키즈'는 약국에서도 판매되면서 아이들 간식거리 걱정이 많은 엄마들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밀가루 대신 100% 이천쌀을 사용한다. 임실치즈, 해남단호박, 강원도 유기농 우유 등 좋은 재료로 만들어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했다. 제품마다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 DHA, EPA 등이 들어있다. '임실치즈쿠키', '해남단호박쿠키', '청정목장우유쿠키'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오리온은 목 건강에 좋은 기능성캔디 '민타'도 약국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와 자범석 의료진이 공동 개발을 통해 만든 건강음료인 '닥터&닥터'는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홈쇼핑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나만의 맞춤 건강가이드'라는 콘셉트로 제품별로 건강고민에 맞춘 기능성분을 담은 제품이다.

청정원 '현미고추장' 시대 연다

주원료 쌀→현미 교체

'청정원'이 순창고추장 주력 제품의 원료를 기존의 쌀에서 현미로 전격 교체했다.

대상(대표 명형섭)은 1일 청정원순창 100% 현미 태양초고추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006년 고추장 주원료를 기존 밀가루에서 쌀로 바꿔 쌀고추장 시대를 연지 6년만에 주원료를 현미로 교체하며 전통 장류 시장의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재료를 바꾼 이유는 현미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청정원순창 100% 현미 태양초고추장'은 매운맛 강도에 따라 '불타는 매운', '매운', '찰고추장', '덜 매운' 등 4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항아리의 숨 쉬는 원리를 이용해 인위적인 미생물 접종 없이도 양질의 효소 활성화가 가능한 전통 발효숙성방식인 '항아리원리 발효공법'을 적용했다. 2단 발효숙성, '태양광 원리 살균공법' 등 청정원 순창고추장의 발효 노하우를 접목해 현미 특유의 거친 입자감 없이 찰지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1㎏ 기준 1만2300원이다.

대상은 현미 고추장으로 대표되는 '일반고추장'과 100% 국산 고추장, 냉장고추장 등 프리미엄 고추장, 초고추장 등 '용도형 고추장' 등으로 순창고추장 제품군을 운영한다. 볶음요리장 등 편의성을 강화한 '요리용 고추장' 군도 추가할 예정이다.

최광혁 대상 장류 담당 상무는 "밀가루에서 쌀로 고추장 재료를 바꿔 소비자들 소화에 좀 더 도움 줄 수 있는 제품으로 개편한 후에도 웰빙까지 고려한 신제품 개발에 꾸준히 주력해 왔다"며 "이제 현미 고추장 신제품은 국내 장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illegible]

롯데칠성 – 북부산림청, 산림보호 맞손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롯데칠성음료는 1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와 시회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을 지원하고 솔잎추출물 함유 음료인 '솔의눈' 제품을 통해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겠다는 취지로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출시되는 '솔의눈' 제품에는 '숲은 우리의 생명, 자산, 미래입니다'라는 공익광고가 들어간다.

팔도 최재문부회장 승진

팔도는 최재문 대표이사 사장(55·사진)이 3월 31일 제24기 팔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1986년 한국야쿠르트에 입사해 기획팀장·기획부문장·해외영업본부장·부사장·관리총괄 본부장을 지냈다. 2012년 1월부터 팔도의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았다.

따가운 봄햇살, 해바라기로 지키세요

엘리자베스 아덴 자외선차단 제품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를 계획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엘리자베스 아덴은 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관리해줄 제품을 소개했다.

에잇아워크림 썬 디펜스 포 페이스 SPF50 PA+++는 가벼운 질감의 오일프리 로션 타입 제품이다.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며 발림성이 좋아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흔히 볼 수 있는 백탁 현상이 없고 얼굴 전체는 물론 콧등, 이마 등 태양에 특히 민감한 부위를 철저히 보호해준다.

로션 타입으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지며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8시간 동안 보습 효과를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에잇아워크림 시그니처인 '8'을 모티브로한 노란색의 튜브 패키지가 적용됐으며 포터블 사이즈로 외출 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에잇아워 썬 디펜스 포 페이스
오일프리 로션… 백탁현상 없어
콧등·이마 등 민감부위 완벽 보호

썬플라워 샤워크림·보디로션
풍성한 거품·촉촉한 보습 자랑
은은한 해바라기향 온몸 감싸

에잇아워크림 썬 디펜스 스틱 SPF 50 PA+++은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며, 외출 시 휴대하기 좋은 크기의 제품이다. 썬스틱은 활기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물과 땀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아 얼굴과 보디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자외선 A(UVA)와 자외선B(UVB)로부터 입술, 코, 귓불, 목 뒤 등의 노출된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호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최대한의 피부 보호와 함께 가볍고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발린다. 안과·피부과 테스트도 완료했다.

신제품 '썬플라워' 샤워크림과 보디로션은 엘리자베스 아덴의 썬플라워 향수 노트를 담았다. 샤워크림은 크림타입으로 풍성한 거품과 뛰어난 보습력이 특징이다. 기존 200ml에서 용량을 늘려 400ml로 출시했다. 샤워크림 사용 후 보디로션을 사용하면 향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된다.

엘리자베스 아덴 측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짓게 만드는 엘리자베스 아덴의 썬플라워는 사랑에 빠지는 때처럼 삶의 소중한 순간을 담았다"며 "멜론과 복숭아, 자스민과 티로즈, 샌달우드의 조화가 특징이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강강술래 "숲으로 스파여행 떠나세요"

봄맞이 힐링 이벤트
리솜포레스트 이용권 추첨
매장 영수증 있으면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이 숲과 스파 등을 통해 차별화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90분 거리의 리솜포레스트 해브나인힐링스파와 연계한 새봄맞이 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 응모함에 명함을 넣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Have9Zone(스파·사우나·찜질방) 이용티켓(1인2매)을 준다.

강강술래 영수증을 소지하고 6월 말까지 방문할 경우 스파 이용권 40% 할인 혜택도 준다.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봄나들이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를 33%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한우사골곰탕(500g/3팩/6인분)과 육개장(500g/3팩/6인분), 갈비탕(500g/3팩/6인분)으로 구성된 보양식 삼총사세트도 50% 할인된 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 또는 술래양념 1각(520g)을 각각 4만3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불고기(500g)를 덤으로 증정한다. /김보배기자 bored@...

슈피겐 '투명케이스' 출시
갤럭시S6 엣지, 뒤태 살린다

모바일 패션 전문 기업 슈피겐코리아(대표 김대영)가 역대 삼성 폰 중 가장 아름답다는 갤럭시S6 엣지의 미려함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줄 투명케이스를 소개했다.

갤럭시S6와 엣지의 모던한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키고 싶은 사용자에겐 메탈릭 프레임과 크리스탈 백 패널의 조화가 돋보이는 '하이브리드형 투명케이스'가 적합하다.

네오하이브리드CC (사진)는 슈피겐의 베스트셀러 '네오하이브리드' 시리즈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메탈릭 하드프레임에 투명한 백패널을 더해 범퍼형 및 투명케이스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

기기보호력을 위해 메탈릭 하드 프레임으로 충격 흡수에 좋은 TPU소재를 부드럽게 감싸는 듀얼 레이어 기술을 적용했다. 투명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투명패널을 제작해 안정감을 더했다.

일렉트릭블루, 새틴실버, 샴페인골드, 메탈슬레이트 등 본인 기기 컬러에 맞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2만7500원.

/이혜진기자 ...

웰앤에이, 감성경영 교육
KBS미디어 평생교육원 후원

웰앤에이(주)는 기업의 조직건강 수준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성경영지원프로그램(EMAP)의 설계·활용이 가능한 감성경영전문가 2급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외 최고의 감성경영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체 특성에 맞는 감성경영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기업 CEO의 감성적 접근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유도한다. 기업 경영진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 형성을 통해 탁월한 조직성과 창출을 이루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다.

교육은 웰앤에이(주)가 주관하고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KBS미디어(주))·(주)램설이엔제이가 후원한다. 18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과목 1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웰앤에이(주)와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KBS미디어(주))·(주)램설어엠제이) 공동으로 수료증이 발급되고, 감성경영전문가2급(Practitioner)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2-6015-1500 또는 lnabiz@naver.co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임신과 환경' 해외학회 주목

김명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최적 임신 환경 위해성 평가(OPERA : Optimal Pregnancy Environment Risk Assessment)' 학회에서 연자로 참여해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OPERA는 임신과 환경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경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김 교수는 국내 조산연구회의 대표로 참석해 '대기 오염과 유해 임신 결과에 관한 한국 코호트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대한 오케타아와학회의 간행위원장과 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위험 임신 중 조산의 다양한 치료 및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날개 단 지역 건설사…수도권 '접수'

뛰어난 상품기획력 수요자들에 호평

수도권에 진출한 지역 건설사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대형건설사와의 맞대결에서도 위축은커녕 뛰어난 상품력을 바탕으로 분양 성공 신화를 잇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남·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 중견건설사들의 수도권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소개된 민영아파트 28개 단지 중 무려 20곳을 지방 건설사가 분양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으로 뛰어난 상품 기획력을 꼽고 있다. 브랜드 선호도·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사에 밀리지 않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 것이다.

부산에서 올라온 반도건설이 동탄의 강자로 발돋움하고, 호남지역에 뿌리를 둔 호반건설이 시공순위 15위까지 올라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보다 인지도가 낮은 지역 건설사들은 입지·분양가·상품 중 하나라도 뒤쳐지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며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건설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반도건설은 이달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공급한다. 반도유보라 브랜드로는 의정부에 첫 진출이다. 지역 최초로 단지 내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건설해 교육특화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호 반도건설 홍보팀장은 "의정부 첫 분양인만큼 지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홍보모델로 선정했다"며 "빅모델을 활용한 것이 아닌 지역 수요자를 모델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소재 건설사인 중흥건설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24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광교 최고 노른자위로 평가 받는 C2블록에 건설돼 신도시 핵심 인프라는 물론, 호수공원 조망권까지 갖출 전망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7월 공급계획을 잡고 있다"며 "광교신도시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우미건설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도전장을 내민다.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C-12블록에 복합단지인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센트럴'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KTX동탄역을 비롯해 상업·업무시설이 모두 도보거리이고, 특히 단지 내 테마 상업시설 '앨리스 빌'이 조성된다.

부산·경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이에스동서는 5월 경기도 하남 현안2지구 C-1블록에서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을 공급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쾌속 교통망을 갖춘 게 특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검단산역(예정)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한화건설, '킨텍스 꿈에그린' 내달 분양

한화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 부지에 복합주거단지 '킨텍스 꿈에그린'을 5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5층, 지상 49층, 10개동, 전체 1830가구 규모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818가구 ▲124㎡ 270가구 ▲148~150㎡ 12가구(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84㎡ 730실이 공급된다.

호수공원이 도보 거리이며, 현대백화점과 레이킨스몰을 시작으로 원시장, 고양은행원시, 원마운트, 이루아플라넷, 롯데빅마켓, 현대오토월드, 이마트 트레이더스(상반기 예정) 등이 인접했다. 장항동 대화동 일대로는 한류 테마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2022년으로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인근으로 한류초교(예정)가 신설될 예정이고, 끝은 강선마을 내 한수초·중, 문산초, 장촌초, 경기영상과학고, 대진고 등이 있다.

단지는 4-bay 또는 2면 개방형 거실 설계를 적용해 자연환기는 물론,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49층 초고층으로 지어져 일산호수공원과 한강, 고양시가지 등의 3면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송파영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일산 주거중심지에 오랜만에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다양한 개발 호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71-1번지 진영빌딩 4층(주엽역 8번 출구)에 분양홍보관이 있으며, 5월 현장 인근에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입주는 2019년 2월 말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지난달 2008년 후 3월 물량으로 최대 분양 지난달 전국적으로 42개 단지, 2만3184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2008년 이후 3월 분양 실적으로는 최대다. 지난달 20일 오픈한 서울 용산리 센트라스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롯데홈쇼핑서 소개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를 TV홈쇼핑에 소개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은 견본주택 개관일인 3일 오후 10시 40분부터 70분간 롯데홈쇼핑 채널에서 방영된다.

기존에 TV홈쇼핑에서 소개되던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은 견본주택 방문이 힘들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수요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출연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과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방송시간 내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주말(4~5일) 견본주택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롯데상품권(2만원권)도 증정한다.

정찬문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홈쇼핑 방영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은 물론,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의 구체적인 분양조건과 상품 특장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는 지하 5층, 지상 47층, 6개동, 총 123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739가구와 84㎡ 318가구 등 10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424-1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3월 건설경기지수 94.9…5년 6개월 만에 최고

주택경기 회복 영향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2009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CBSI가 전월 대비 11.4포인트 상승한 94.9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2009년 9월 96.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3월은 혹한기가 끝난 뒤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며 "특히 올해는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분양이 활발한 대형과 중견업체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대형업체는 전월보다 15.4포인트 오른 115.4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한 것으로, 2002년 5월(142.8)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견업체 역시 12.5포인트 오른 103.1로 조사돼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웃돌았다.

반면 중소업체는 4.5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낮았고, 지수도 61.5에 그쳐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4월 전망치는 3월 실적치 대비 8.3포인트 높은 103.2로 집계됐다. 2009년 10월(110.8)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어선 것으로, 다수의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다만 "대형업체의 전망지가 실적지 대비 23.1포인트 높은 138.5인데 비해 중견업체는 9.3포인트 낮은 93.8을 기록했다"며 "업체 규모별로 시각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두 아들 얻고 자신감 커졌어요"

SBS 8시 뉴스' 앵커 정미선

정미선 SBS 아나운서(34)는 입사 13년 만에 'SBS 8시 뉴스' 앵커가 됐다. 결혼과 출산이 여자 아나운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겐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됐다.

"예능은 반드시 웃겨야 하고 뉴스는 뉴스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생각이 달라졌죠. 육아 휴직을 하면서 시청자가 돼 방송을 보니까 예능, 교양, 뉴스 모두 그냥 방송이더라고요. 뉴스도 진실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첫째를 출산하고 주말 뉴스 오디션을 봤는데 예전보다 목소리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입사한 후 이유 없이 위축됐고 스스로 벽을 만들었던 거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아들 둘을 낳고는 무서운 게 없어졌죠. (웃음)"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문성현 씨와 장기간 연애 끝에 2008년 결혼했다. 두 아들을 둔 정미선 아나운서는 육아 예능 출연을 반신반의했다.

"연년생 남자 아이 둘이에요. 셋째가 딸이라는 보장이 있어도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가족 예능에 출연하면 녹화 자체가 불가능할 거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남자애들이지만 얌전하죠. 제가 어릴 때 수줍음이 많았어요. 쑥스러워서 중국집에 주문 전화도 못할 정도였죠. 아이들이 제 성장을 닮은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 낯선 사람들이 있는 방송에 출연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 진실된 마음·편하게 전달하려 노력
> 수줍음 많은 아이들… 예능은 글쎄

오후 1시쯤 출근하지만 오전 내내 육아에 집중한다. 그는 "앵커 일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 속상하기도 하다. 그래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모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만의 뉴스 진행 비결을 공개했다.

"소소한 이슈도 생기죠. 머릿속에 늘 집어 넣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는 내용이어야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5초 멘트로 시청자를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앵커를 판매원에 비유하기도 해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타방송사 뉴스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알아도 시청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시험 응시생 중에도 지나치게 절실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든요. 뉴스도 오버하면 안 되죠."

전임 앵커 박선영 아나운서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외모도 뉴스에 적합했고 전달력도 똑부러진 친구예요. 갑자기 본인 의사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저도 당황했어요. '모닝와이드'를 진행하다가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부담감, 전임자로 인한 부담감을 모두 느껴야 했죠. (박선영에 비해)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런데 선배들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여자 앵커도 있는 거라고 말해줬죠. 또 현재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앵커가 모두 숙명여대 출신이에요. 이왕이면 제가 선배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입사할 때도 말했지만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아는 잔잔한 아나운서로 남고 싶어요. 이름 알리는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웃음)"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디자인/[illegible]

star bag

꽃미소+오빠 눈빛 발사

배우 **이진구**가 미소 3종 세트를 공개했다. 이진구는 KBS2 새 금요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공부, 운동 실력이 뛰어나고 외모까지 훈훈한 정재민 역을 맡았다. 사진에서 그는 10대 소년의 해맑은 미소와 묵직한 오빠다운 분위기를 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드라마는 5월 중 첫 방송된다.

中 드라마 주연 발탁

배우 **이태환**이 중국 드라마 '망부성늪-딸의 독립시대' 주연으로 출연한다. 그는 기업 대표이자 흠잡을 곳 없는 꽃미남 두문지 역을 맡았다. 중국 배우 왕일쉬·린시 왕이난 등과 호흡을 맞춘다. 중화권에서 차세대 한류 스타로 위치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망부성늪'은 40부작으로 올 하반기 방영 예정.

크로스진으로 컴백

JTBC '비정상회담' 일본 대표 **타쿠야**가 본업인 가수 활동을 재개한다. 타쿠야가 소속된 6인조 그룹 크로스진은 오는 17일 두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국내 활동을 시작한다. 타이틀은 '나하고 놀자'로 소속사는 "남성미를 풍기기 시작한 크로스진 멤버들의 매력이 정점을 찍는 앨범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K팝스타' 무대 올라

여성듀오 15&(피프틴앤드)의 **박지민**이 첫 솔로 앨범 '호프리스 러브(Hopeless Love)'를 발표한다. 2012년 방송된 SBS 'K팝스타' 우승자 출신인 박지민은 오는 5일 'K팝스타 4'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솔로곡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솔로와 15& 활동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다.

올 봄 가요계는 '아이돌 빅매치'

엑소·미쓰에이 이어 빅뱅 3년 만에 완전체 컴백… 소녀시대 신곡 한·일 동시 발매

올 봄 가요계는 그야말로 컴백 대란이다.

이번주 컴백한 엑소(EXO)와 미쓰에이(Miss A)를 시작으로 쟁쟁한 가수들이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어 '아이돌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엑소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중독' 이후 약 11개월만인 지난달 30일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로 팬들 곁에 돌아왔다.

엑소는 컴백에 앞서 지난달 28일 타이틀곡 '콜 미 베이비(Call Me Baby)'를 공개, 9개 음원 차트를 휩쓸며 성공적인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규 2집 '엑소더스'의 오프라인 앨범 선주문량은 컴백 이틀만에 총 50만2440장(1일 오전 8시 기준)을 돌파했다.

정규 1집 'XOXO(Kiss & hug)'로 100만장 판매고를 올려 '밀리언셀러 아이돌'이란 수식어를 얻었던 엑소가 이번에도 100만장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솔로와 유닛 활동에 주력했던 빅뱅은 약 3년 만에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해 첫 컴백 아티스트는 빅뱅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티저 이미지엔 'BIG BANG'이라는 글자와 함께 '2015.05.01'부터 '2015.09.01'까지 5개월간 매달 1일이 표시돼 있어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지드래곤은 빅뱅의 새 앨범과 함께 월드투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팬들 사이에선 티저 이미지 속 날짜들이 빅뱅의 새 앨범과 월드투어에 관한 것인지 혹은 다른 깜짝 이벤트에 대한 것인지 각종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쓰에이(Miss A)는 약 1년 5개월 만에 발표한 새 앨범 '컬러스(Colors)'로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0시 공개된 타이틀곡 '다른 남자 말고 너'는 멜론·엠넷·소리바다·몽키3 등 국내 주요 10개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차트 1위(1일 오전 11시 기준)에 오르며 올킬을 달성했다.

특히 음원사이트 멜론이 24시간 누적이용자수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걸그룹 최초로 3일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소녀시대는 한국과 일본 팬들을 동시에 만난다. 새 앨범 싱글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뮤직비디오를 한국어와 일본어 2개 버전을 제작해 오는 10일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강렬한 EDM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중독성 강한 댄스곡으로 도발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번 싱글 앨범엔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걸스(Girls)' 2곡이 수록돼 있다.

한국어 버전은 10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며 일본어 버전은 오는 22일 오프라인 앨범으로 발매돼 한일 양국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할 전망이다.

/김재인기자 lanekim@metroseoul.co.kr

'스물' 150만 돌파 눈앞

평일 하루 10만명… '분노의 질주7'과 접전 예고

김우빈, 이준호, 강하늘 주연의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이 평일에도 꾸준한 관객 동원을 보이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스물'은 개봉 7일째인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관객수 10만7372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굳건히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35만1526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침체가 이어졌던 극장가에서 '스물'은 평일에도 평균 10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30일 월요일에도 10만7301명의 관객을 모았다.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금주 중 150만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말 관객까지 포함하면 200만도 쉽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복병이 될 전망이다. 1일 오후 12시21분 기준으로 예매율 집계에서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44.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물'도 22.6%의 높은 예매율로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주말에는 두 영화 사이에 치열한 흥행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개봉 5주차에 접어든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누적 관객수 575만을 넘어서며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고 있다. '위플래쉬'도 누적 관객수 129만 관객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를 지키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musical review
/안은영기자 eun@

전쟁 포로의 슬픈 탭댄스

포로감정 섬세히 표현… 강렬한 한방 없어 아쉬워

■ 로기수

"미국은 싫지만 탭 댄스는 좋아요."

뮤지컬 '로기수'의 주인공 로기수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거제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소년 공산포로다. 형 로기진은 공산당 혁명가다. 그러나 로기수는 미군 흑인 장교가 추는 탭 댄스에 매료된다. '미제 댄스'가 가족과 포로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걸 알지만 '탭서는 춤 출 때만 있으면 된다'는 신념을 지키며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종군기자 베르너 비쇼프가 찍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성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포로들은 복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다. 뒤쪽에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하다. '로기수'는 실제 거제포로수용소 상황을 당시 뭇에도 꼼꼼한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을 자세히 설명한다.

클라이맥스는 두 곳이다. 로기수가 탭댄스를 통해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날아오르는 1부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복면을 쓰고 춤 추며 총알받이가 되는 장면이다. 배우들의 탭 댄스가 신선한 재미를 준다. 특히 현란한 발놀림과 어우러진 무용 동작은 억압받으며 혁명으로 살아야 하는 포로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강렬한 한방이 없는 점이 아쉽다. 로기수 앤 가족 형제애,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 같은 전쟁 콘텐츠의 전형적인 요소가 녹아 있다. 선산한 조명, 공연장을 지나치게 메우는 음향으로 핵심 내용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탭 댄스에 빠진 로기수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주제들에 비중을 줄였다면 2시간30분 공연이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로기수'는 5월 31일까지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된다.

'실버라이닝…' 감독의 로코 '엑시덴탈 러브' 내달 개봉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아메리칸 허슬'의 데이빗 O. 러셀 감독이 연출한 로맨틱 코미디 '엑시덴탈 러브'가 다음달 7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엑시덴탈 러브'는 황당한 사고로 머리에 못이 박힌 여자 앨리스(제시카 비엘)가 국회의원인 하워드(제이크 질렌할)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데이빗 O. 러셀 감독은 전작들을 통해 남다른 유머 코드의 대사와 배우들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엑시덴탈 러브'로 또 한 번 진면목을 확인시켜줄 예정이다.

할리우드 대표 배우인 제이크 질렌할과 섹시 아이콘 제시카 비엘은 이번 영화를 통해 개성 강한 캐릭터로 그동안 보여준 적 없었던 코믹 로맨스 연기를 펼쳤다. /장병호기자

훈련하는 박주영

7년만에 K리그 출격…3연패 서울 첫승 기대

국내 K리그로 복귀한 박주영(30·FC서울)이 마침내 출격한다.

그의 복귀 무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전이다. 박주영의 K리그 출격은 2008년 8월 30일 광주 상무전 이후 2409일 만이다.

박주영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구리 GS챔피언스파크에서 벌어진 동국대와의 연습경기에서 1골을 터트리며 예열을 마쳤다. 빈공간을 파고든 후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FC서울은 박주영의 출격이 절실하다. 슬로스타터인 서울은 3라운드까지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3연패에 빠졌다. 3경기를 치르는 동안 고작 2골을 넣으며 득점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주영은 "어떤 말보다 경기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며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서울은 2008년 8월 27일 이후 제주를 상대로 21경기 연속 무패(13승8무)를 질주하고 있다. 박주영이 출격하는 4일 제주전이 올시즌 서울의 첫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정기자

윤규진 '대성불패' 신화 잇겠다

김성근 감독 '벌떼야구' 핵심
"한화 수호신 자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마무리 투수 윤규진(31·사진)이 선배 구대성(46)의 '대성불패' 신화를 잇겠다는 각오다.

2003년 한화에 입단한 윤규진은 그동안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승 9세이브를 올리며 진가를 발휘했다.

새롭게 한화의 지휘봉을 잡은 김성근 감독은 윤규진에 대해 "침착하게 공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며 "구위가 좋고 포크볼이라는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칭찬했다.

불펜투수들을 활용한 '벌떼야구'를 펼치는 김 감독은 올 시즌 그 마지막 순간을 장식할 투수로 윤규진을 지목했다.

김 감독의 바람처럼 윤규진은 지난달 28~29일 넥센과 시즌 개막 2연전에서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개막전에서 3이닝 동안 탈삼진 4개를 포함해 무실점 퍼펙트로 틀어막았고, 2차전에서도 1⅓이닝 1피안타 무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 역투로 세이브를 올렸다.

윤규진이 롤 모델로 삼은 구대성은 1993년 프로에 데뷔해 2010년 KBO리그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화에서 13시즌을 뛰며 통산 214세이브 67승 71패의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했다. 독수리 군단의 수호신으로 팬들은 '대성불패'라는 애칭을 선물했다.

윤규진은 "구대성 선배가 출전하는 경기는 지지 않는다는 그 이미지를 닮고 싶다"며 마무리로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불펜과 실전에서 투구를 많이 했다. 작년의 배 이상 한 것 같다"면서 "지시에 맞춰 하다 보니 페이스도 시즌 개막에 맞춰 올라온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윤규진은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삼은 것은 없고, 부상 없이 풀시즌을 뛴다면 기록은 따라올 것"이라며 "열심히 준비했으니 준비한 것만 확실히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겸손해 했다.

/김민준기자 mk.m@metroseoul.co.kr

MLB 평균연봉 47억

커쇼 342억 '최고 몸값'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400만 달러를 돌파했다.

AP통신은 1일(한국시간) 2015시즌 개막일 기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425만 달러(약 46억8733만원)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시즌 개막일 기준 평균 연봉은 395만 달러(약 43억5645만원)였고, 2013시즌의 경우 365만 달러(약 40억 2558만원)였다.

LA 다저스의 선발투수 클레이튼 커쇼(사진)가 3100만 달러(약 341억8990만원)로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했다. 저스틴 벌랜더(디트로이트 2800만 달러), 잭 그레인키(다저스 2700만 달러), 조쉬 해밀턴(LA 에인절스 254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팀 전체 연봉은 다저스가 2억7000만 달러(약 2977억원)로 가장 높았다. 다저스는 지난해 전체 연봉 2억3400만 달러를 기록, 15년 동안 뉴욕 양키스가 지켜오던 최고 연봉 구단 자리를 빼앗은 바 있다.

이어 양키스(2억1500만 달러), 보스턴 레드삭스(1억8500만 달러), 디트로이트(1억70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1억6000만 달러) 순이였다. 최소 연봉 구단은 마이애미 말린스(6500만 달러)였다.

/장윤정기자

강정호 '주목해야 할 유망주 10명'에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를 '주목해야 할 유망주 10명'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했다.

MLB닷컴은 1일(한국시간) 개막전 직전 기사로 유망주 10명을 선정하며 "한국인 내야수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서 대단한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정호는 7일 개막전에서 엔트리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강정호가 한국에서 40홈런을 쳤던 기량을 메이저리그에서도 펼친다면 피츠버그는 기적같은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강정호는 미국 플로리다 주 레이크랜드의 조커 마천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상대로 1타점 2루타를 치며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기량을 갖춘 선수"라며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김민준기자

침묵하던 추신수 3루타 폭발

침묵하던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오랜만에 장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6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3루타) 1득점 1타점 1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20일 만에 터진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개인 2호 3루타로 시범경기 타율을 0.179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0-1로 뒤지던 2회말 무사 1루에서 좌익수 방향으로 1타점 3루타를 치며 1-1 균형을 맞췄다. 이어 다음 타자 에드 루카스의 중전 안타때 홈을 밟았다.

두 번째 타석인 3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좌익수 직선타로 물러났고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홈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6회말에는 파울 팁 삼진으로 돌아섰다.

추신수는 8회초 수비 때 우익수 알렉스 버그와 교체돼 나갔다. 텍사스는 10-15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쌍욕 먹으면서 일하는 알바 봤나요?"

CJ대한통운, 택배 상하차 알바에 욕설 난무
추위·욕설·중노동에 못견뎌 몰래 도망가기도

매일 아침 8시 30분쯤 인천 부평역 근처에서는 다리를 절뚝이거나 어깨를 계속해 주무르는 등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날 밤 8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쏟아져 나오는 택배 물품을 쉴없이 여러 8톤 트럭에 상하차 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일 아침에도 부평역 인근에는 경기도 이천이나 충청북도 옥천·청주 등 지방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를 한 인원이 40여명 있었다. 일을 마치고 택배업체가 제공한 대절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올라온 것이다.

젊은 20대부터 나이가 지긋한 40~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한상자당 40kg에 달하는 택배 물품을 힘에 부쳐 옮기지 못해 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도 택배 상하차 일을 해봐서 이들의 고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기자는 택배 상하차를 경험하기 위해 옥천 CJ대한통운 택배 공급센터로 이동했다.

옥천 CJ대한통운 센터는 해당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택배 물품을 한데모아 각지로 분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택배 물품 70여만개가 이 센터로 몰렸다. 추석, 설날 등 연휴기간과 연말이 껴 있는 달에는 다른 달보다 10%가량 택배 물품이 더 몰린다는 게 CJ대한통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 인력충원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인력비를 지원한다.

당시 기자는 오후 5시 30분쯤 부평역 인근에서 CJ대한통운 협력업체가 제공한 대절버스를 타고 옥천으로 이동했다. 버스 안에 들어서자마자 쉰내가 진동했다. 몸을 씻지 않은 노숙자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가 출발한지 10분도 안돼 대부분 곯아떨어졌다. 여기저기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한 대학생이 "잠을 자둬야 새벽에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출발한지 2시간이 지나서야 옥천 센터에 도착했다.

저녁 밥을 먹고 오후 8시 30분쯤 되서야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버스로 같이 온 40여명을 상자에 하자를 팔 인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기자는 상차 일을 맡았다. 8톤 트럭 한대당 2인 1조로 상자를 쌓아야 했다.

택배 물품을 싣고 각지로 운송될 트럭 화물칸 주변에 너저분하게 물품들이 쌓여있다. 절인 김치가 담긴 포장박스, 쌀, 소금 포대 등 족히 20Kg이 넘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었다.

트럭 화물 칸에 무거운 물품을 쓰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야 돼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기자도 짐에 부게 택배 물품을 찾다 쓰러트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작업반장은 "XXX야 똑바로 안 해. 못하면 일당 없을 줄 알아"라며 욕설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중년 남성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협력업체 직원이 욕을 하자 "너 몇살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이 험한 말을 한 것 같다"며 "감정 상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업체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추위와 직원들의 욕설, 중노동을 이기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일당도 필요없다며 몰래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각 상차구역마다 트럭 2~3대에 물품을 실으니 오전 6시가 넘었다.

작업을 마쳤다는 직원들의 외침에 일제히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며 인천 방면의 버스에 올랐다. 얻은 것은 신체 여러 부위에 난 상처와 일당 7만원이 든 흰봉투뿐이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이주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檢 '美대사 습격' 김기종 기소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사진)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부위와 심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처 부위와 공격에 사용된 24cm 길이의 흉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지시' 갑질 교수 집유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자신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갑질'을 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김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대학 노모 교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2009년 10월 같은 대학의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 교수가 제약회사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약의 효능을 실험해야 하니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감독은 그 대신 논문을 써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쓰도록 지시했다.

연구교수가 쓴 논문은 김 교수를 통해 축구부 감독에게 전달됐고,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같은 대학 체육대학원 부원장인 노씨도 '갑질'을 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필하도록 하거나, 이 대학 체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최모씨의 학위논문도 대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 하에에 있는 연구교수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했던 축구부 감독 등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대학교 70%, 인권 관련 수업 없다

10곳 중 3곳만 개설

지난 2년간 전국 대학교 가운데 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전국 국공립·사립대 36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 전국 대학교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전체의 3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관련 강의가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69%에 달했으며 사립대의 경우는 인권 강의 미개설 비율이 71%였다.

전국 대학교 1개교당 개설된 인권 강좌는 평균 2.0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국내 대학의 70% 가량이 인권 관련 강좌를 하나도 개설하지 않았고, 개설돼 있다고 해도 다양성이 부족하다"면서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인권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준기자